

# 칠카트 블랭킷의 文化的 象徴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ultural Symbolism of the Chilkat Blanket-

培材大學校 衣類學科

專任講師 具 美 志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ichai Univ. full-time instructor Koo, Mi-Ji

## 〈 목 차 〉

I. 序 論

II. 의복과 문화적 상징성

III. chilkat blanket과 potlatch

IV. 結 論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at the clothing in a cultural system is a visual symbol expressing the aspects of its technology, social-structure, and ideology.

For this, the chilkat blanket of Tlingit is selected and analyzed. Tlingit is the one of the indian tribes of the Northwest Coast of the North America. This chilkat blanket used as an ostentatious item in the potlatch has the various functions. First, it expresses the thechnological features in this society, as the process of weaving, collecting of materials, etc. Second, it provides the view of the social-structure through its role differntiation of sex, and affirmation of the rank systems in this cultural system. And we can see the ideological value of this culture through the chilkat blanket. They persuit the value of labor and the harmony between thier lives and the nature in this design.

In conclusion, the clothing must be considered and analysed its value in the context of the society.

## I. 序 論

의복이 문화체계내에서 시각적인 상징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

다. 문화의 구성요소들은 상징적인 인간행동을 내포하고 있으며<sup>1)</sup> 그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지워주는 행동과 믿음을 반영한다.<sup>2)</sup> 이것은 문화요소들이 그 사회의 독특한 맥락에서 이해될 때 외연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내포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Sontag과 Schlater<sup>3)</sup>는 의복의 의미를 6가지의 다면적 개념을 가진 차원에서 정의하면서 의복이 한 개인의 정체성, 분위기 또는 태도 등의 의미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복의 상징적인 표현은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의복이 개인적인 단서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사회적인 단서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복식사회심리분야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상징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의복이 개인적인 단서(cue)의 표현으로 수입, 교육, 직업, 성역할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sup>4)</sup>과 라이프스타일,<sup>5)</sup> 소비패턴<sup>6)</sup>등의 심리학적 특성을 전달하는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의복은 의복자체를 착용하는 개인에 관한 단서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관한 가치관, 규범, 사회제도 등에 관한 정보 즉 사회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착용한 의복은 착용자 자신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관하여 물질적이고 행동적인 표현의 결과로써 간주될 수 있고 이는 문화적 상징물로서의 의복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sup> 즉 문화내에서 문화적인 상징성이 내포된 의미로써의 의복과 그 의복을 입는 행동을 통하여 옷은 문화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써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미인디언의 한 부족인 Tlingit에서 나타나는 칠카트 블랭킷(chilkat blanket)과 그들 사회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의례로써 포틀라치(potlatch)를 예로 들어 그 사회내에서 이 독특한 의복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수행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Tlingit족은 북서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섬에 있는데 대륙내부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타문화의 영향이 적었으므로 민족적 특질과 전통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Tlingit의 칠카트 블랭킷은 그 사회내에서 문화내 특질들이 내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단절시키지 않고 명맥을 잘 유지시켜 왔다. 여기서 의복 자체에 관한 언급에서 더 나아가 의복 착용자의 관념들이 그 사회내에서 어떠한 기술적

인 방법을 통하여 표현되는가를 설명하여 의복이 사회문화적인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관한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직접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보고된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II. 의복과 문화적 상징성

의복은 문화의 하위문화체계로써 특정문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독특하나 어떤 문화를 표현한다는 사실에서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 하위문화 체계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관계하며 상호작용하는 세 요소들 즉 기술(technology),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관념(ideology)으로 이루어져 있다.<sup>9)10)</sup> 여기서 기술은 물질문화를, 사회구조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의된 역할과 어떤 집단내로 자신을 조직화하는 방법<sup>11)</sup>등의 사회적 행동을 말한다. 관념 즉 이데올로기란 선악, 옳고그름, 적당함과 부적당함을 정의하는 인식적 범칙의 구조로써 보통 신념, 태도나 가치를 말한다.<sup>9)</sup> 이것은 Tylor<sup>12)</sup>와 White<sup>10)</sup>의 문화개념으로 더 발전하여 Hamilton<sup>13)</sup>의 상층상구조모델(layer-cake model)로 재조직할 수 있다. 이는 Harris<sup>14)</sup>가 상부구조(super structure), 구조(structure),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 부른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존재가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조직한 다양한 메카니즘, 즉 경제조직, 정치조직, 가족과 친족의 조직, 사회화과정, 관념적 조직, 예술과 메카니즘들의 상호작용은 역동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체계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한 문화체계의 하위문화로서 의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내의 구성요소로써의 기술, 구조, 관념의 차원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조직적인 메카니즘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복을 문화적 상징물로서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 의복이 사회내에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상징물로 보는 것이다. Roach와 Eicher<sup>15)</sup>는 의복을 포함한 장식이 개인의 미적 경험, 사회내의 역할,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믿음체계, 관습, 가치를 표현하는 전달적인 상징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의복이 타문화의 연구에

서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Kaiser<sup>16)</sup>는 의복이 명백하고 외향적인 상징물로써 의복의 가시성과 외모단서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초기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Hollander<sup>17)</sup>는 의례에서 사용된 의복은 가시적이고 사용된 주제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Payne<sup>18)</sup>는 이에 관계된 예를 제시하였는데 많은 부족에서 그들을 토렘미즘으로 이끄는 동물의 일부를 착용하는 것이 그 동물과의 동질화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특히 의례중의 무용수나 사제의 상징물을 극화시키고 대중화시킨 것이라 하였다.

둘째 의복은 물질문화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적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복은 자연, 인간, 사회문화적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관하여 Kaiser<sup>16)</sup>는 에스키모 의복이 극한이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동물모피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테일러드형의 의복을 만들어 입게 되었다고 하였다.

세째 의복은 인간행태의 보편적 측면이면서 그 시대의 다른 예술분야와 표현 및 주제면에서 일치된다는 것이다. 즉 의복이 한 시대의 회화, 건축, 조각, 실내장식, 가구 등 타예술분야의 시각적 조형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주제와 일치점을 갖는다.<sup>19)</sup>

네째 현대로 올수록 문화상호간의 접촉이 증가되므로 사회체계내 또는 사회체계간의 확산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내의 의복이 이러한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개념<sup>16)</sup>에 기초하므로 사회-심리적 인지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스타일의 선택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런데 타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보수적인 문화에서는 비교적 민족적 특질과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권내에서는 그들의 문화내 특질들이 내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명백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Beeson<sup>20)</sup>은 사춘기, 결혼 등의 통과의례와 관계된 여러 치장들이 그 문화내에서 구성원들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의미로써 통합시키는 기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의례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나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복이 통과의례의

한 부분이 된다는 유사성을 가지며, 의례에서 사용된 의복스타일과 관습은 매우 느리게 변화한다고 하였다. Gurel<sup>21)</sup>의 애미쉬(Amish)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들의 실용적이고 소박한 생활이 옷에도 잘 반영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의 상징이나 사회구조내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애미쉬의 의복은 집단 동질화에 기여하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문화내에서 통용되는 상징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요루바(Yoruba) 여성의 다양한 머리장식은 사물, 사건, 상황 등의 각종 메시지를 상징화한 형태로 사용되었다.<sup>22)</sup> 각 형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보로 대체되기도 하나, 그 사회내에서는 대부분이 이해되고 전달된다.

### Ⅲ. chilkat blanket과 potlach

북서태평양연안은 에스키모나 북미대륙내부의 원주민들과는 비교적 다른 복식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독특한 블랭킷은 이 연안의 Tsimshian, Haida, Kwakiutl 등 여러 부족사회내에서 전달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안에 충진된 문양의 표현방식과 내용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문화체계안에서 칠카트 블랭킷이 어떻게 생산되고 사용되어 졌는가, 그 문화내에서의 사용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가치부여와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 이들을 Hamilton의 모델인 기술적, 사회적, 관념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技術的 次元

하위문화체계로서의 의복에 관계된 기술적인 것들은 직조에 필요한 재료의 수집과정, 제조과정등을 살펴볼 수 있다. 칠카트 블랭킷은 주로 Tlingit족에 관계하나, 그 기원은 Tsimshian의 것으로 보인다.<sup>23)25)</sup> 이 지역에서 비교적 북부에 위치한 Tlingit, Tsimshian, Haida 등은 반직기(Half loom)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후에 Salish족에게 전해지면서 그곳에서 전직기(whole loom)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직조하는 방법 외에도 나무줄기를 잘게 부순 것이나 여러종류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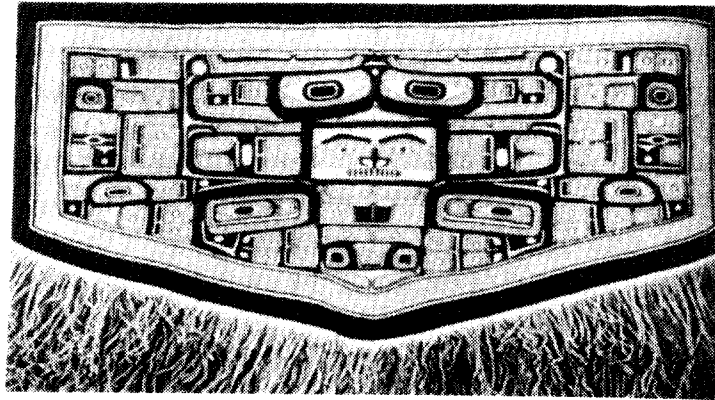


그림1 Tlingit chief의 chilkat blanket. National Geographic Society(1974).

죽과 모피를 의복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sup>23)</sup>

이 칠카트 블랭킷은 평상시에 사용한 삼나무 줄기로 짠 블랭킷과는 달리 산양털로 방적한 실과 삼나무의 줄기섬유로 정교하게 짠 것이다.<sup>23)(26)(27)</sup>

이 특별한 블랭킷은 기하학적이거나 인습화된 동물로 디자인된 무늬<sup>28)</sup>를 표현하는 것에 따라 자연적인 흰색을 쓰거나 검정, 노랑, 푸른색으로 염색된실을 상용하기도 한다. (그림1)

이 블랭킷의 직조과정에는 성에 관한 역할분담이 뚜렷이 나타난다. 즉 남자는 산양털을 얻기 위해 사냥을 하고 직기를 만들며 고유의 블랭킷 디자인을 그린 패턴판을 만들어 채색한다.<sup>30)</sup> 해양과 산림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는 주로 돌고래, 비이버, 곰, 전설적인 새 등이 디자인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직조에서는 이 동물들이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상화되어 있다. 크게 중

양면과 양측면의 세부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발톱이나 꼬리등 동물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만 그 동물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앙면에는 주로 각진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것과 여러개의 눈, 주둥이, 이빨, 발톱 등이 보인다. 이 중앙을 채우는 모티브들은 블랭킷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배열이 달라진다. 각 모티브들이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sup>31)</sup> (그림2)

이에 근거하여 그림3을 풀어보면 고래와 갈가마귀가 표현된 것이다. 즉 Emmons<sup>32)</sup>에 의하면 중앙 부분의 아래쪽에는 입과 콧구멍이 있는 머리가 있고 중앙의 얼굴은 몸을 나타낸다. 윗테두리쪽의 두개의 눈은 꼬리의 갈라진 부분이고 몸양옆의 큰 날개 모티브는 지느러미이다. 양측면은 어린 갈가마귀가 앉아 있는 것이며 동시에 고래의 옆과 등을 나타낸다. 다른 예를 들면 그림4는 한마리의 새를 나타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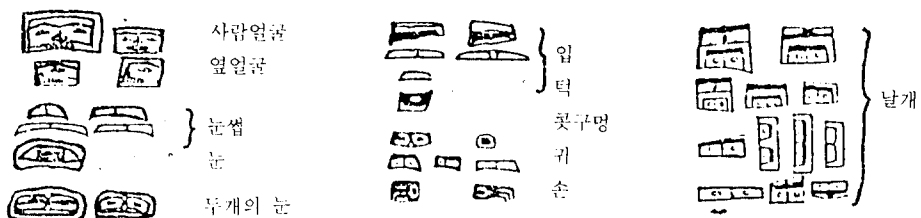


그림2 칠카트 블랭킷에 나타난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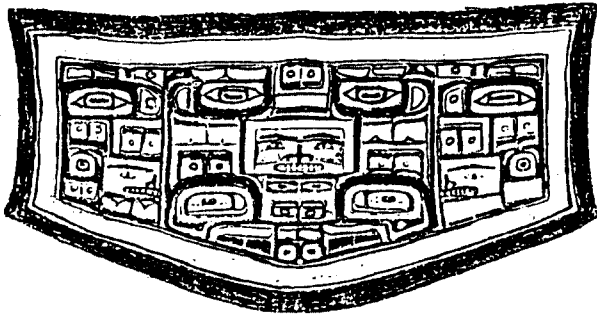


그림3 고래와 갈가마귀를 표현한 것. Emmons(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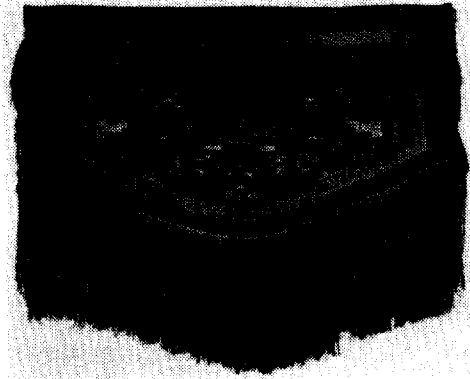


그림4 새를 표현한 것. Claiborne(1973).

인이다. 윗쪽 테두리 근처의 중앙에 있는 두개의 눈은 새의 눈을 나타내고 중간 사람의 얼굴은 몸이고, 중앙하단의 눈은 다리와 몸을 연결하는 엉덩이 관절이다. 이 아래에 새의 날개를 표현하였다. 아래쪽 모서리의 사람의 옆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같이 칠카트 블랭킷은 그들이 가까이 접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암호와 같은 모티브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비사실적인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기호를 사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물의 특징적인 면을 조합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며 자연형상을 추상화한 표현이다. 이들은 모티브의

전개면에서 나뉘는 구도를 갖는다. 각 모티브들은 눈을 사용하여 연결되는데 이것은 원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관절 또는 연결을 의미하며 Kwakiutl 예술의료에 의하면 팔로 해석되기도 하고,<sup>30)</sup> 단지 여백을 메꾸기 위한 공간회피로써 보기도 한다.<sup>31)</sup>

이것이 한눈에 해석되는 그 문화내의 구성원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주술적인 의미뿐 아니라 착용자를 토켄과 동일시하는 동질화의 개념도 갖는다. 그런데 유럽세력의 침입이후에는 동물에 관한 표현 기법이 매우 사실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전통적인 기법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sup>32)</sup> 그림 5와 그림6에는 이러한 기법의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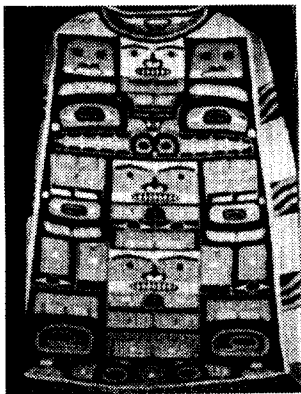


그림5 돌고래를 표현한 Tlingit shirts.  
Oliver la Farge(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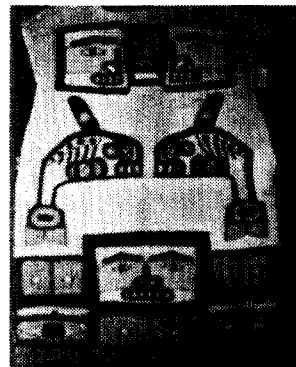


그림6 1900년대의 사실적인 Tlingit chilkat shirts.  
Oliver la Farge(1972).

## 2. 社會構造的 次元

북서태평양 연안 부족사회에서, 해양자원과 산림 자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은 Spencer와 Jennings<sup>35)</sup>가 지적한 대로 원시자본주의라는 부의 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써 작용하였다.

이러한 부의 개념은 북서태평양 연안의 생활의 여러 측면과 관계하고 이 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기여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부의 개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 연안부족들은 에스키모나 대륙내부의 Athabaskan 언어군들과는 구별되는 친족조직을 갖는다. 즉 이들은 모계혈통을 따르면서 半族(moiety)과 같은 혼합된 친족관계를 이루고 있다.<sup>36)</sup>

이곳은 국가개념이나 부족간의 영토개념이 희박하다. 반면 부족이라는 범주는 상용되는 언어에 의해 구분된다. 또한 정치적 단일체는 거의 없으면서도 같은 목적 또는 동질성의 감각을 갖는 단위조직인 친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7 Tlingit chief, Claiborne(1973)

그러므로 한 개인이 속하는 단위들은 여러종류가 가능하다. 가장 좁게 핵가족으로부터의 확대가족, 同族, 民族, 半族, 部族이다.<sup>36)37)</sup>

여기에서 확대가족은 핵가족보다 좀더 큰 의미로서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가족단위이다. 함께 어업이나 사냥에 참여하며, 부의 축적에 협동하다. 여기에서의 우두머리는 가족을 다스리는 주장이다. 동족은 그 지역의 마을단위와 거의 일치한다. 함께 사냥, 채집, 어업에 참여한다. 씨족의 경우 이 지역에서는 Tlingit족만이 반족과 관계하여 씨족을 이룬다. 반족은 결혼을 통제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다양한 동족을 정돈하기 위한 개념이다. Tlingit의 경우는 갈가마귀와 늑대라고 불리는 반족들이 있다.

추장은 여러종류가 있다. 보통 동족을 세운 선조의 직계혈통에서 가장 나이든 남성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 이사람은 동족추장이며, 다음 순서로 하위동족추장, 가족을 다스리는 주장 등이 있다.<sup>36)</sup>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은 동족의 선조와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추장외의 다른 계급으로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나,<sup>38)</sup> 위의 개념에 의하면 대부분을 귀족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끝으로 전쟁포로들인 노예가 있는데, 이들은 주인 재산의 일부일 뿐으로 의례에서는 주인의 소유에 대한 파시로서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sup>39)</sup>

이들 공동체 내에서의 상대적인 지위는 그 부족내에서의 중요한 의례등의 문화적인 측면과 깊이 관여



그림8 Salish dancers, National Geographic Society(1974)

하여 계급과 그로 인한 특권, 이름들이 의례중에 노래나 연설 또 거기에 사용된 의복에 나타나게 된다.<sup>40)</sup> 즉 칠카트블랭킷은 원칙적으로 추장, 주술사 등 그 부족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지위와 그에 따른 특권은 특수한 상징의복에 대한 착용 권리의 부여를 의미하며,<sup>40)</sup> 의례의복의 소유나 그에 대한 과시는 사회질서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능이 재료와 직조법에 의하여 계층화된 블랭킷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림7, 8)

### 3. 觀念的 次元

북서태평양 연안의 Yakutat灣에서부터 British Columbia어귀 까지의 모든 부족에게서 발달되어온 포틀라치(potlatch)는 행동패턴과 강조점은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는 보일지라도 비교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포틀라치는 베푸는 사람(주인)과 초대된 사람(손님)간에 행해진다. 먼저 추장이 그의 동족 또는 확대가족집단에게 포틀라치에 대한 관심을 알리고 시기를 정하며 초대될 사람들을 말하게 된다. Tlingit의 경우 손님들은 주로 추장부인의 동족을 초대하게 되며<sup>41)</sup> 보통 엄격히 선별된다.

포틀라치를 수행하는 목적<sup>42)43)</sup>은 부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즉 Tsimshian은 주로 추장이 자신의 유산과 타이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행해지며 Haida의 경우는 상속자의 지위 확인을 위하여 행해진다. 반면 Tlingit족은 추장이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해 상대편 반족이 행해준 장례 의식이나 기념비 건립 등의 봉사에 대한 보답과 새로운 추장의 입관식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기념비나 집을 건축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 기간동안 상대편 반족의 건축자들을 위하여 먹이고 재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부족을 이루는 반족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반면 다른 집단의 추장이나 귀족들간의 경쟁의식이 내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의례가 무르익어갈 무렵 주인은 자신의 주장과 타

이들을 드라마나 연설을 통하여 표현한다. 포틀라치의 주인은 손님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물들을 '주기 위하여' 수개월 내지는 수년동안 준비한다. 이를 위해 전 동족 또는 가족원들이 협력하여 수집하거나 만든다. 선물은 딸기류, 해초, 견제연어, 많은 음식, 모피, 조각한 연장이나 도구, 상자, 무기들이고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삼나무줄기, 털, 실로 짠 여러종류의 블랭킷이 있다.

포틀라치 의례의 끝순서가 다가오면 참석자의 서열에 따라 선물들을 나누어 준다.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칠카트 블랭킷이고 그밖에 수달피가죽이나 담비털, 곰가죽들을 함께 나누어 준다. 그외의 사람들에게는 남은 블랭킷이나 밍크, 사슴가죽들을 빠진사람 없이 골고루 분배하여 준다.

그런데 이들 동물디자인이나 의복을 장식하는 모든 도구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연환경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sup>40)</sup> 이것은 자연과 인간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이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조화는 그들 사회질서의 기본적인 기초이며, 이러한 관념은 그들의 삶의 구조와 명예의 존중, 신성함의 추구등이 가시적 상징물인 의복을 통하여 세련되고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다.

포틀라치는 현대사회의 과시적 소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의례를 치루면서, 추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위엄을 놓이며 동시에 추장자신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시말하면 '주는' 행위를 통한 공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지위는 아무리 주장해도 이 문화체계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직조과정을 비롯한 포틀라치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관념적인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굳이 힘든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존과 교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례에서 소모되는 물품들을 얻으려면 그사회 구성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을 요구하게 된다. 칠카트 블랭킷의 경우 한개를 짜기 위해서 필요한 산양의 털은 3마리정도에서 얻을 수 있다. 식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노동을 투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위한 열매의 채집, 생선의 기름채취, 바꾸니를 짜는 것, 그밖에도 모피를 얻기 위한 사냥이나 조개수집 등을 위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노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에게 노동의 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환경요인의 만족함에 따른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칠카트 블랭킷의 직조기술이 그 문화내에서 계속하여 전해지기 위한 동기 및 목적이 이 의례를 통하여 지속되게 된다.

#### IV.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틀라치는 지위의 정당성을 얻는 과정이며, 축적된 부의과시는 부의 개념이 소유자의 권리를 확인하며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위를 획득하는데 사용된 높은 가치를 가진 칠카트 블랭킷은 일종의 자본의 기능을 하였다. 또한 이 의례를 통하여 부족연합체내의 다른 지역 또는 동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됨으로써 통합의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칠카트 블랭킷은 역동적인 사회체계의 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적 표현물로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며 사회내의 구조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념체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블랭킷의 문양, 독특한 직조방법과 과정은 반족 자체의 문화적 연계성을 부여하며, 특별한 결연관계와 소속표시, 착용자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유물론적 관점에 의하면 의복 즉 물질적 상징물 자체가 개인의 사회화의 문화적 체계의 연속성에서 큰 역할을 함을 지적하면서 물질적 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의복자체가 하나의 상징물이며 중요한 시각적 매개물임에는 분명하나 의복이 그 사회구조의 맥락과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존재할 때에는 그 의복의 기술적인 가치와 상징적 의미는 이미 무의미하다. 즉 한 문화체제 안에서 어떤 기술이 있기에 그 기술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이 관념을 형상화시

킬 수 있도록 동조하는 사회구조, 또 이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차원 모두에 관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의복은 그 사회의 역동적이며 상호작용하는 문화시스템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의복의 존재의미와 가치가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의복을 개인의 미적 예술적 차원을 기초로 하여 좀더 나아가 문화의 한 요소로서의 의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이는 앞으로 의복이 그 사회내에서 문화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Kroeber, A.R. & Kluckhohn, C., Culture, Harvard University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aeology and Ethnology Papers, Cambridge: The Museum, 47(1), 1952. quoted in Singer, M.,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Macmillan Co., 1968, p.68.
- 2) Biesanz, M.H. & Biesanz, J., Introduction to Sociolog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1973, p. 54. quoted in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박영사, 1987, p.188
- 3) Sontag, S. & Schlater, J.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TRJ, Vol.1, 1982, pp.1-7.
- 4) Workman, J.E., "Fashionable versus Out-of-date Clothing and Inter-Personal Distance", CTRJ, 5 (3), 1987, pp.31-35.
- 5) Davis, L.,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TRJ, 3(2), 1984-85, pp.20-24.
- 6) 손미영, "여성기성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 7) Morganosky, M.A., "Aesthetic, Function, and Fashion Consumer Values: Relationship to Other Values and Demographics", CTRJ, 6(1), 1987, pp. 15-19.



- 8) Hamilton, J. & Hamilton, J., "Dress as a Reflection and Sustainer of Social Real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TRJ*, 7(2), 1989, pp.16-22.
- 9) Hamilton, J.,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1987, pp.1-7.
- 10) White, L.A., *The Science of Culture*, NY: Farrar Straus and Giroux, quoted in Hamilton(1987), op. cit., p.3.
- 11) White, L.A., *The Concept of Cultural System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2.
- 12) Tylor, E.B., *Primitive Culture*, NY: Henry Hold and co., 1874, quoted in Hamilton(1987), op. cit., p.3.
- 13) Hamilton, J., "The Concept of Culture in Business: Popular Fad or Useful Paradigm?", Invited Seminar Presentation to the Danish Management, Ebeltoft, Denmark, 1985, quoted in Hamilton(1987), op. cit., p.3.
- 14) Harris, M., *Culture, People, Nature*, 3rd ed., NY: Harper and Row, 1980, quoted in Hamilton (1987), op. cit., p.3.
- 15) Roach, M. & Eicher, J. Ed., *The Language of Personal Adornment*, in Cordwell, J. & Schwarz, R., *The Fabric of Culture*, NY: Mouton pub. 1979, pp.7-21.
- 16)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Y: Macmillan Pub. Co., 1985, p.418.
- 17) Hollander, A.,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1978, p.238.
- 18) Payne, B.,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 Row, Pub., 1965, p.3.
- 19)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2), 1989, p.3.
- 20) Beeson, M., "The Regalia of Ritual: Rites of Passage", in Gurel, L.,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A Book of Readings*, Iowa: Kendall/Hunt Pub. Co., 1979, pp.26-29.
- 21) Gurel, L., "Four Hundred Years of Custom and Tradition: The Dress of the Gentle Folk", in Gurel(1979), op. cit., pp.46-50.
- 22) Ogunwale, T., "Traditional Hairdressing in Nigeria", *African Arts*, No.3, Spring, 1972, pp. 44-45.
- 23) Spencer, R. & Jennings, J. et al, *The Native Americans*, NY: Harper & Row, 1977, p.126.
- 24) Emmons, in *Human Relation Area Files*, NA12 Tlingit, 1907, p.390.
- 25) Oliver al Farge, *The American Indian*, NY: Western Pub.Co.Inc., 1972, p.170.
- 26) Claiborne, R., *The First American*, NY: Time-Life Books, 1973, p.75.
- 27) Krause, in *Human Relation Area Files*, NA12 Tlingit, 1956, p.140.
- 28) National Geographic Society ed., *The World of the American Indian*, Washington: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74, p.233.
- 29) Driver, H.E., *Indians of North America*,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2, pp.153, 169-174.
- 30) Maurer, E.M., "Symbol and Identification in North American Indian." p.133 Clothing, in Cordwell, J. & Schwarz, R. Ed.(1979), op. cit., pp.119-142.
- 31) Emmons, op. cit., p.366.
- 32) Emmons, op. cit., p.369.
- 33) Oliver la Farge, op. cit., p.178.
- 34) Emmons, op. cit., pp.391-395.
- 35) Spencer, R. & Jennings, J., op. cit., p.139.
- 36) Spencer, R. & Jennings, J., *OP.CIT.*, PP.128-129, 132.
- 37)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문화인류학,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pp.136-137, 108.
- 38) National Geographic Society ed., op. cit., p.226.
- 39) Claiborne, R., op. cit., p.74.
- 40) Maurer, E., op. cit., p.133.
- 41) Spencer, R. & Jennings, J., op. cit., p.137, 140.
- 42) Oliver la Farge, op. cit., p.182.
- 43) Spencer, R. & Jennings, J., op. cit., p.141.